

새봄, 새 마음으로 부처님가르침 들어볼까

출·재가자 위한 특별한 법석

새 봄,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다고 결심한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스님의 유식특강은 물론, 초기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들을 위해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 <디가니까야> 등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법석이 이어진다.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유식사상을 공부하고 싶다면 혜거스님의 '해심밀경, 유식30송' 강의를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오는 3월18일부터 3개월간 혜거스님을 강사로 '해심밀경, 유식30송' 강의를 진행한다. 혜거스님은 세친보살이 유식사상을 5연4구의 30개의 계승으로 정리한 <유식30송>과 법상종의 근본 경전으로 유식의 깊은 뜻을 말한 <해심밀경>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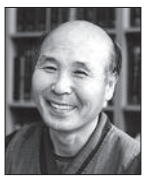
수업은 7월16일까지 매주 화, 수요일 오후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법원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학기 중에는 혜거스님의 강의와 함께, 유식사상을 전공한 전문가 초청 특강이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스님의 강의는 서울불학승가대학원 재학생 외에 스님과 일반인 모두 청강할 수 있다. 신청마감은 오는 3월14일까지며 서울불학승가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면 된다.



해심밀경 유식 특강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빠알리어본 법구경 공부
봉선사 현진스님



'와서 보라' 디가니까야
이종표 전남대 교수

초기불교를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산스크리트 편집실 부설 봉송아학당은 오는 27일부터 2015년 2월26일까지 '현진스님과 함께하는 빠알리어 산스크리트어 강의'를 진행한다. 최근 종단 교육 아사리로 선정된 현진스님은 인도 뭍나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지난 2011년 본지에 '이야기 산스크리트'를 연재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법구경>의 빠알리어본인 <답마빠다>를 공부하는 빠알리문장반, 인도 브라만교의 최고 경전으

로 꼽히는 <바가바드기타>를 읽는 산스크리트문장반, 산스크리트 문법을 위주로 빠알리 문법을 함께 익히는 문법반 등 3개이다. 강의는 서울 불광사 부설 불광교육원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차례로 진행된다. 봉송아학당 이메일(sanskritsil@hotmail.com)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면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

이종표 전남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정선(精選) 디가니까야>를 교재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 책은 이 교수가 초기경전 중 가장 긴 부처님 말씀이 담긴 <디가니까야> 34개 경 가운데 불교의 수행법을 잘 보여주는 12개의 경을 선정해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이다. 이 교수는 오는 3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불교여성개발원 교육관 교육장에서 '와서 보라' 강의를 진행한다.

이종표 교수는 디가니까야를 "붓다 당시의 다양한 인도사상과 풍습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불교교리와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어 불교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와서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여현경 기자 eonaido@ibulgyo.com

“불교계, 쌍용차 갈등 해결 노력에 감사”

해고노동자 40여 명
총무원장 스님 예방

복직 후 첫 차 구입
지속적 관심 '화답'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예방을 받고 해고 빚어진 갈등 해소를 위해 종단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전

실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등 해고 노동자 40여 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방문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종단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합장 반배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예를 올린 뒤, 총무원장 스님의 대한문 농성장 방문, 노동위원회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촉구 10만배 기도정진 등 갈등해소를 위한 종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그동안 부탁만 드리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종단을 찾아왔는데 오늘은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이번 고등법원의 쌍용차 노동자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은 그동안 함께 해준 시민사회, 종교계의 노력으로 이룬 사회적 판결”이라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회적 타협으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종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노동위원회 설립 등 노동문제에 대

한 종단의 관심을 소개한 뒤, “희망적 판결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복직이라는) 큰 산을 넘어설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기도하겠다”며 “총무원을 찾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종단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장 종호스님도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들이 복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 이후 만든 첫 번째 쌍용차를 총무원장 스님이 구입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지속적인 관심의 뜻을 밝히며 흔쾌히 구입을 약속해 노동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세부항목 '이견'...종교인과세 법안 처리 '무산'

국회 기획재정부 외 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종교계 의견 수렴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지난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종교인에게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기타소득 분류 등 소득 항목과 과세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별도의 종교인 소득 세목을 신설하거나 기타소득 내 종교인소득 항목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종교계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여야와 정부 관계자가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향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종교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관련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에서도 일부 보수 개신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법안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상금, 강연료 등 비정기적으로 얻는 '기타소득(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인 과세방침을 발표했다. 당초 종교활동을 '근로'로 분류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종교계의 정서적 반감으로 기타소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1월부터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공제 없이 4.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계종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난해부터 '찬성'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단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고 관련기관과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들이 받는 사례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개신교의 입장을 중심으로 불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세부적인 과세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

난해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이 종단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문건에는 가족공제, 다자녀소득공제 등 특수행위를 지향하는 종단의 특성과 무관한 개신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사찰 주지 스님을 비롯해 선원 수좌, 승가대학 학인 등 소임에 따른 과세안과 법문비, 해제비 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기획재정부의 과세안은 불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대로 시행됐을 경우 불교 수행환경을 반영한 종무행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종단의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불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e@ibulgyo.com

“실록·의궤 제자리 봉안하라” 강원종교협·범도민총 촉구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와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각각 결의문을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지역 6개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대표회장 김윤희 주교)는 지난 12일 제13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소장,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할 수 있는 '(가칭)평창 기록문화유산 디지털정보와 전시관' 건립에 문화

재정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강원지역 각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제자리찾기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하루빨리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특수교육기관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인모집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은 불전 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고 나아가 전통 의식·의례를 온전히 전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종단 교육기관으로 일상 상용의례와 한글의식의 보급, 전통 수록제 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과정을 신설하여 학인을 모집합니다.

학과	상용의식과정	전통의식과정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2014년 4월 구족계 수계 예정자도 응시가능 함)	
기간	2년(4학기)	
교육 내용	▷도량식·종성·각단예불 ▷불공·시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다비의례(사다림) ▷한글의식·의식이론	▷사물연주 (대북, 소북, 태징 장단이론) ▷법고무반주(이름, 무용실기) ▷바라무(천수바라, 사다라니) ▷나비무(도량계, 다계) ▷회심곡(소리, 북반주) ▷화청 ▷태평소(호적)
복수지원도 가능함		
학과	연구과정	
자격	본교 전통의식과정 졸업자	
기간	3년(6학기)	
교육 내용	▷대령·신중작법(창불)·괘불이론·영산작법·예수재 ▷어산Ⅰ(제산단, 가림단, 풍백우사단, 산신단, 용왕단) ▷어산Ⅱ(오공양, 육법공양) ▷어산Ⅲ(천지명양수륙제)	
※ 위 과정수로 후 3급 승가교시 응시자격부여 (선방 4인제 수여해택)		

문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9길 56-12 흥원사,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Tel : 02-6342-3100, 010-6424-3436(교무) Fax : 02-2063-3344

www.kbtca.or.kr

교구총회 소집공고

『총림법』제14조의3(선출직위원) 2호 및 선거법 제22조(선거일) 4호에 의한 선출직 임회위원 구성을 위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구총회 소집 및 후보자 등록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소집일시 _ 불기2558(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음. 2월 25일) 오후 2시

…장 소 _ 영축총림 통도사 원통방

…안 건 _ 영축총림 임회 선출직위원 선출의 건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자격: 법계 대덕(혜덕) 이상인 통도사 재적승
- 입후보자 등록기간: 2014년 3월 20일 ~ 3월 22일(오전 9시~오후 5시까지)
- 입후보자 등록서류: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1부

…문의 처 _ 제15교구 본사 통도사 중무소 055-382-7182

불기2558(2014)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총회 의장 원산 도명